

이성훈(서울대)\*

본고에서는 1992년 활동을 시작하여 2000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중남미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영역과 방법론을 모색했던 중남미 하위주체 연구그룹(*Grup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l Subalterno*: 이하 GELS)의 성과와 그 한계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그룹의 구성원들은 주로 미국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적인 연구자들로, 연구그룹이라는 집합적인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개개인의 지적 성향과 연구방법론에 있어 매우 이질적이다. 그들은 서구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 혹은 ‘총체화’ 경향으로 인해, 주변부 사회가 분석의 대상화하는 한편 지적 영역 역시 식민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작업을 하나의 균질적이고 통합적인 이론틀에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이론적 가능성들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중남미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적 연대와 실천을 지향했다. 그들의 이러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담론의 소통에 사용되고 있는 거대담론, 혹은 거대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현실 분석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민족, 계급 등의 개념에 대한 비판과 ‘하위주체’라고 하는 대안 모색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구하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Manifiesto inaugural*)”(1992)의

---

\* Seong-Hu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Outcomes and Limitations of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서두에서 중남미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 즉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혁명적 기획들의 좌절, 재민주화과정, 매스미디어의 영향, 탈국가적인 새로운 경제질서의 등장 등이 새로운 정치적 사유와 실천 형식을 모색하게 했고, 여기에 구하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 그룹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GELS는 하위주체의 개념화와 중남미학의 관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단계의 특성을 드러내는 주된 사건으로 쿠바혁명, 68운동, 산디스타 혁명을 들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쿠바혁명은 불만족스러운 문화적 정치적 실천이었다. 정치권력을 교체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혁명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정의 주체로서 중상계층의 재현에 중점을 둠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성, 인종, 언어들의 주체가 문제화 되었지만 해결책이 “계급적이고 단일한 주체(sujeto clasista unitario)”로 귀결됨으로써 이런 주체들로 환원되는 혹은 동일한 지식 엘리트에 의해 생산된 이론적, 문화적 텍스트의 전유에 치중했다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68년대 이후 정치 영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산의 영역에서 증언이나 다큐형식들이 고급한 재형형식들을 대체하게 된다. 또한 봄세대들과 달리 이들 증언적 텍스트들에 등장한 하위주체들은 텍스트 자체의 구성의 일부가 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지속적인 사회운동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적 사회질서의 모색은 계급 중심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패러다임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결국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재현에 실패한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 문화, 민주화, 전지구화, 그리고 ‘탈’ 개념 등이 키워드가 됨으로써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하위주체 연구그룹이나 버밍햄 그룹의 이론적 작업으로 인해 중남미 연구자들도 중남미에 재현의 식민적, 혹은 신식민적 시스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특히 전지구화와 탈국가화라는 이론적 전제하에서, 하위주체그룹은 새로운 이론적 모색을 진행했다. 국가라는 영토를 가진 조직 속에서 하위주체

가 억압되고 존재성이 부정당했다고 한다면, 탈 국가시기에 가능한 하위주체의 형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형성 이전의 존재 형식들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엘리트나 하위주체 그룹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해진 재현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중남미의 경우 국가 형성기에 있어 다양한 하위주체의 개입이 무시되고, 프리오요 엘리트 문화 중심의 국가가 형성됨으로써, 일정하게 국가주의적 기획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적이고 ‘국가적’인 인식론들이 하위주체들을 순전하게 재현의 대상으로만 간주했기 때문에, 하위주체의 활동은 ‘분출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출적인 행위를 통해 하위주체는 사회적 통제의 수직적 시스템과 단절하고, 재현의 헤게모니 형태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하위주체는 국가나 그 대리인들에게 ‘협상’을 강요하게 하는 것이다. 주체의 재현에 부과되는 다양한 형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의 테이블에서 다양한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그들의 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이 바로 중남미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일레아나 로드리게스(Ileana Rodriguez)는 이 그룹의 멤버들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Gerge Mason Univ.에서 개최된 모임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호세 라바사(José Rabasa), 하비에르 산히네스(Javier Sanjinés), 로베르토 카(Roberto Carr), 존 비벌리(John Beverley), 일레아나 로드리게스이다. 그녀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은 주로 프레드릭 제익슨이 주재하던 문학 연구모임에서 만났고, 남아시아 그룹의 연구성과가 중남미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론이 되리라는 판단을 통해 새로운 연구그룹을 형성한 것이다.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있었던 두 번째 모임에 발터 미놀로, 마리아 밀라그로스 로페스, 마이클 클락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서 결합한 연구자들은 주로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이른바 ‘최종심급에서의 결정론’과 관련된 주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외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가 갖는 맥락을 이론화 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했다. 즉 보다 명확하게 기존의 국가주의적이고 계급중심적인 분석들과의 절연을 모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베르토 모레이라스, 개러스 윌리엄스(Gareth Williams), 존 크라니우스카스(John Kraniauskas), 조세피나 살다냐(Josefina Saldaña), 압둘 무스타파(Abdul Mustafa), 사라 카스트로-클라렌(Sara Castro-Klaren), 페르난도 코로닐(Fernando Coronil) 등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있었던 모임을 통해 이 그룹에 참여했다.

그녀에 의하면 GELS의 성원들은 대부분 1960년대 좌파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후 맑시즘, 종속이론, 인종, 페미니즘 등의 이론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들을 유지해온 그들에게 문학과 정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맥락에서 70년대 중반 존 비벌리, 일레아나 로드리게스, 그리고 당시 UC San Diego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제임슨 등이 위에 언급한 바 있는 <맑시즘 문학연구 모임>을 구성하게 되고, 이후 존 비벌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에르난 비달과 안토니오 사하레아스에 의해 미네소타 대학에 <이데올로기와 문학연구소>(Institute of Ideologies and Literature)가 설립되고 일레아나가 여기에서 리더로 활동한다. 이 두 조직이 이후 역사학의 영역에서 통학문적이거나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파트리시아 시드와 마운 등의 역사학자들과 결합게 됨으로써 중남미 하위주체 연구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구하를 중심으로 한 하위주체연구 방법론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그들이 60년대 이후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과거의 문제의식으로 인해 남아시아 그룹의 이론적 작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정한 학문적 연관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친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분과학문에 기반한 전통적인 학문질서에 대한 저항과, 좌우파 공히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거부에서 그들을 결합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 졌다고 본 것이다. 일레아나 로드리

게스는 이 점에 관해 자신들이 모색하고 있던 “새로운 인문주의”와 남아시아 그룹의 작업에서 보이는 “새로운 종류의 감수성”이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GELS는 남아시아그룹의 연구 방법론을 수용하여, 변화된 중남미 현실을 해석하고자하는 이론 그룹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자리메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의 수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 그룹에 대한 많은 비판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GELS는 남아시아 그룹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체의 재현과 이 재현과 관련된 역사 기술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먼저 간략하게 남아시아 그룹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란지트 구하, 파르타 차터지, 기야넨드라 판디 등으로 대표되는 남아시아 그룹은 하위주체 연구 라는 연구물을 통해, 인도를 위시한 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이견을 제시한다. 즉 그간의 역사 연구와 역사 기술이 엘리트 중심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적인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하위주체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역사기술과 하위주체의 재현에 있어 엘리트들이 행해왔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재검토를 시도한다.

남아시아 그룹이 역사기술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존의 역사기술이 반식민적 민족주의의 현실을 명확하게 포착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맑시즘 양 진영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 좌파 진영의 계급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인도라는 사회에서 계급 개념이 담지해 내지 못하는 사회적 힘을 하위주체라는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즉 그들은 주변부 모더니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계급개념은 인종이나, 성과 같은 범주들을 넘어설 수 없는 평면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 대안으로 하위주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하위주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위주체의 재현에 개입한 지식인 계층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 점은 마운의 작업에 대한 존 비벌리의 언급을 통해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레아나 로드리게스는 수렴하는 시간 (*Tiempo de convergencias*)에서 하위주체그룹의 연구를 정리하기 위해 세 가지 논제를 들고 있다. 하나는 하위주체 연구와 그 정의의 다양성이 갖는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가, 두번째는 중남미학(estudios latinoamericanos)과 남아시아의 하위주체연구의 관계, 마지막으로 국가, 문화, 하위주체간의 상관관계가 그것이다.

하위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그녀는 남아시아 그룹의 다양한 견해를 언급한 후 중남미적 맥락에서의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다. 그녀에 의하면 하위성은 “지배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통제하거나 혹은 전유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기 위한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지배 담론 내에서 모순과 전위를 강화하고 전복의 가능성을 담보한 타자”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 중남미적 특수성을 매개시키는 방법으로 하위주체 연구의 현재적 생산 조건을 언급한다. 하위주체성이 유럽적이고, 지배적인 체계모니적 인식의 다양한 한계 혹은 부정에 대한 메타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남미현실을 설명하는 특수한 삶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지역성 혹은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고, 하위주체연구의 중남미적 형태의 적실성이 보장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위주체는 피억압자들에 체화되어 있는 사회적 위치를 말하거나, 국가간 권력을 결정짓는 모든 종류의 식민적 관계에서 발동하고 있는 권력의 식민성을 작동시키고 어떤 조건을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하위주체는 하위주체연구 내에서도 다양하게 절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내부의 논쟁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유발하고 있다.

역사학 연구자로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는 플로렌시아 마온 역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좌절이 결과한 이론진영의 무력함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현실전유방법을 모색했다. 그녀 또한 민족과 계급개념에 기반한 유럽적 모델에 대한 불만족을 토로하고 하위주체그룹 연구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동시에 외래적 이론의 수입이 갖는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다.

마온은 자신의 저서 *농민과 국가 (Peasant and Nation)*에서 국가

형성기에 멕시코와 페루 농민들이 지배 엘리트들의 내셔널리즘/민주적 담론과 어떻게 갈등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 헤게모니가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농민들은 일련의 탈중심화된 투쟁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 나름의 ‘지역적’ 국가관을 통해, 서구의 내셔널리즘/민주적 담론과 국가형태에 저항한 것이다. 그녀에 의하면, 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이 서구 식민주의와 역사적으로 결합한 것이 중남미의 내셔널리즘/민주적 담론 내에 기본적인 모순을 만들었다. 한쪽으로 평등, 자유 등의 보편적 담론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 대중들은 유럽적이고 계급적, 혹은 젠더 배제에 따라 앞의 보편적 권리인 시민의 권리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마온의 기획은 이런 상황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위자들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녀는 친족, 세대적 권위, 집단적 소유형태 기초한 농업 공동체에 주목하여, 이러한 공동체 헤게모니의 형식과 그녀가 ‘지역적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활동과 새로운 민족국가가 강제하는 제도적이고 억압적인 기제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협상에서 보여지는 모순과 갈등을 꼼꼼하게 추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 관계가 그들의 균열 속에서 드러나며 ‘대안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현재의 멕시코나 페루에서 보이는 민족국가의 종류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하위주체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복원해 냄으로써, 중남미 현재에 개입해 있는, 혹은 가려져 있는 하위주체의 재현 가능성을 확보해 낸다.

마온의 이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업이 실제로 하위주체의 재현과 얼마나 기여하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비벌리는 다양한 목소리간의 대화로서 역사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가 내러티브가 필요한데, 마온의 경우 ‘전지적인 화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계를 보여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녀가 시도한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농민주체들이 실제로 19세기 멕시코와 페루의 국가형성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급진적 이중성’과 국가의 공식역사가 보

여주는 단일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가 담아내고 싶어하던 하위주체 행위자들의 ‘부정’과 카운터 헤게모니의 동력을 지배 헤게모니에 고착시키고 말았다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GELS의 논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논의는 가르시아 깡끌리니의 ‘혼종성’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남미 문화분석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혼종성이라는 개념 역시 헤게모니의 정치학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하위주체적 관점에서 혼종성을 다시 사고할 수 있는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가르시아 깡끌리니의 혼종성이라는 맥락은 중남미의 모더니티 논자들의 논의가 그러하듯 새로운 지적 엘리트들의 현실전유를 위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를 둘러싼 논쟁이 보여주듯이 계급적, 성적, 인종적 불평등이 차이로 축소되고, 분리를 다양성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실의 구체적인 갈등을 은폐하고 혼종성을 일종의 민주적 기획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혼종성 개념에 대한 하위주체적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르면 혼종성이라는 개념이 헤게모니/하위주체간의 대립을 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대립이 경제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전지구화와 탈영토화의 진전을 통해 극복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중남미 모더니티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즉 중남미의 모더니티 논의는 사회문화적 모더니티의 진전에 의해 전개된 논의가 아니라, 중남미에 존재하는 다층적 시간성을 전유하기 엘리트들의 지적 전략이었듯이, 이 혼종성 개념에는 마찬가지로 중남미에 존재하는 이러한 대립을 무화하고 전지구적 아젠다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남미 지식인들의 지적 과잉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바바의 혼종성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중남미적 문맥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지적한 고부웅의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혼종성이 갖는 저항적 성격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혼종성이 결과된 지난한 파괴의 경험과 현실에 내재한



갈등의 역사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GELS의 활동에 관한 비판은 이 그룹에 속해 있었고, 또 이 그룹의 사망선고를 내린 존 비벌리에 의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그의 견해는 이 그룹이 주로 듀크 대학에 연고를 둔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들어 “듀크 대학 하위주체 연구의 딜레마”라고 제목을 붙인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비판은 특정한 듀크 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1세계 대학, 특히 미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이론들이 교역하는 현상과 이 현상 뒤에 숨어있는 학문공동체간의 불균등함과 위계화 현상, 즉 중남미가 1세계 지식인들의 학문적 대상으로 고착되어,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실천의 장이 아니라 서구 지식의 소비처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읽힌다. 이런 맥락에서 “듀크 대학처럼 그 자체가 엘리트 교육기관인 듀크 대학에 의해 준비된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하위/지배 관계를 생산/재생산 한다면, 어떻게 하위주체가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물론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한계를 자각하고, 그들의 역할을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하위주체와 우리들, 그러니까 미국 내 대학에 기반한 연구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데 한정하고자 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비벌리의 경우 이런 입장과 하위주체 재현에 개입하고 있는 지식인, 특히 1세계 학문제도 내의 연구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위주체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캠퍼스라는 제도 바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일레아나는 GELS에 대한 비판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한다. 먼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현실을 분석한 이론을 중남미에 대입시킴으로써, 식민경험과 인종 문제 등 상이한 중남미적 문맥과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여행이론’(traveling theory)이라는 딱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미국대학을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되면서, 중남미 이론진영 내에서 판아메리카니즘 혹은 북미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 점은 지식인의 지리적 위

치가 텍스트의 의미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입장으로 마벨 모라냐의 경우도 “하위주체의 봄”이라는 글에서 동일한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하위주체의 재현에 개입해 있는 지식인의 포지셔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욘의 작업에서 보여지듯이 하위주체의 재현에 대한 열망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면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말해 그녀의 작업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적 지식인’들의 대안적 내러티브들은 그녀에 의해 패러프레이즈되고 재구술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GELS는 하위주체의 재현, 여기에 개입한 지식인의 역할, 국가와 하위주체의 관계 설정, 하위주체 연구의 장소 등을 둘러싼 제기된 비판과 내부적 한계로 인해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하위주체연구의 성과들을 중남미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영역과 방법론을 모색해 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Abstract

This essay briefly examined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Grup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l Subalterno; GELS)” that had explored new research areas and methodologies in Latin American study from 1992 to 2000. The members of this group were independent intellectuals who worked mainly in universities in US. They were quite heterogeneous in their intellectual tendenc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even though they are referred as a research group. They criticized that ‘generalization’ or ‘wholization’ tendencies of western theories take the marginal society as an object of analysis and also colonialize the intellectual areas of this society. They tried to accomplish the critical overthrow to its gigantic arguments of western theories. Their critical perspectives on this gigantic arguments or

paradigm, which have been used in many communication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an be seen in their criticisms on the concepts of nation and social class, which used frequently in the analysis of reality, and their search for an alternative called as subaltern.

Ileana summarized the criticisms on GELS as two things. First of all, it failed to notice the its unique context of Latin American colonial history and racial problems by directly applying South Asian realities surrounding India to Latin America. Also, as you can see from its label of 'traveling theory', this theory was developed mainly in the universities in US so there exist concerns for pan-Americanism or influence of North America. Secondly,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thing lies in the positioning of intellectuals who were engaged in the reemergence of subaltern. As you can see from the works of Mallon, the eager desire of the reemergence of subaltern resulted in putting their own voice in the front.

In conclusion,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Latin American study has searched for new research areas and methodologies by introducing outputs of GELS, even though today GELS itself is not taking an active part in Latin American study due to its own limitations and criticisms about reemergence of subaltern, the role of intellectuals working in subaltern,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nation and subaltern.

Key Words: Subaltern Studies, Subalternity, Grup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l Subalterno, Ileana Rodríguez, John Beverley, Florencia Mallon  
/ 하위주체연구, 하위주체성, 중남미하위주체 연구그룹, 일레아나 로드리게스, 존 비벌리, 플로렌시아 마온

리뷰에세이 투고일자: 2003. 11. 10.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 고부응,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 Beverley, John(2000) "The Dilema of Subaltern Studies at Duke", *Nepantla*, Vol. 1, Issue. 1, pp. 33-44.
- Grupo Latinoamericano de Estudios Subalternos(1992), "Manifiesto inaugural", in Santiago Castro-Gómez y Eduardo Mendieta, Eduardo(eds.)(1998), *Teorías sin disciplina: Latinoamericanismo, poscolonialidad y globalización en debate*, Mexico: Porrúa.(Este Manifiesto fue publicado primero por *Boundary 2*, Vol. 20, No. 3).
- Kraniauskas, John(2000), "Hybridity in Transnational Frame: Latin-Americanist and Postcolonial Perspectives on Cultural Studies", *Nepantla*, Vol. 1, Issue. 1, pp. 111-133.
- Mallon, Forencia E.(1995), *Peasant and Nation: The Making of Postcolonial Mexico and Peru*,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to, Daniel(2000), "Not 'Studying the Subaltern', but Studying with 'Subalten' Social Groups, or, at Least, Studying the Hegemonic Articulations of Power", *Nepantla*, Vol. 1, Issue. 1, pp. 478-498.
- Moraña, Mabel, "El boom del subalterno", in Santiago Castro-Gómez y Eduardo Mendieta(eds.)(1998), *Teorías sin disciplina: Latinoamericanismo, poscolonialidad y globalización en debate*, Mexico: Porrúa.
- Rodríguez, Ileana(2000), "Cross-Genealogies in Latin American and South Asian Subalten Studies", *Nepantla*, Vol. 1, Issue. 1, pp. 45-57.
- \_\_\_\_\_ (2001), "Reading Subalterns Across Texts, Disciplines, and Theories: From Representation to Recognition", in

Ileana Rodríguez(ed.), *The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Reader*, Durham: Duke UP, pp. 1-34.

---

\_\_\_\_\_ (ed.) (2001), *Convergencia de tiempos: Estudios subalternos/contextos latinoamericanos estado, cultura, subalternidad*, Amsterdam/Atlanta, Rodopi.